



전기공업 신기술 개발 및 수출 유공자 선정 포상

「'98 서울국제종합전기기전」 행사의 일환으로 그동안 수출 및 기술개발 등에서 공헌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식이 오는 6月 9日 열릴 예정이다.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최근 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시영중전기(주) 임수택 사장 등 5명을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비롯 중소기업청장 표창 5명, 한국전기공업진흥회장 표창 9명 등 총 19명의 유공자를 선정하였다.

이번 수상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포상 대상자 >

포 상 구 문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산업자원부장관 (5명)	시영중전기(주)	대표이사	임 수 택
	대 연 전 자 (주)	대표이사	이 창 근
	(주) 우 진 정 공	대표이사	임 인 걸
	LG 산 전 (주)	부 장	고 희 정
	한국전력공사	부 장	허 업
중소기업청장 표창 (5명)	영화산업전기제작소	대표이사	공 호 영
	아시아계전(주)	대표이사	이 병 설
	(주) 동 남 물 산	연구소장	신 현 록
	서 울 분 전 반	부 장	황 성 슬
	(주) 광 명 기 전	차 장	오 세 철
한국전기공업 진흥회장 표창 (9명)	남 성 기 업 사	대표이사	이 종 성
	오 성 기 전 (주)	상무이사	문 희 봉
	광 명 기 전 (주)	과 장	이 상 권
	(주) 진 광	차 장	김 희 기
	동미전기공업(주)	차 장	황 인 순
	동진모타공업(주)	과 장	우 홍 수
	성 원 전 기	과 장	박 정 범
	KD 파 워 (주)	대표이사	박 기 주
진 흥 회	대 리	이 창 수	

'98. 2차 산업기반기금 지원 안내

공업발전법시행령 제18조 및 '98 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요령(산업자원부 공고 제98-15호, '98. 3. 21)에 의거 '98 산업기반기금중 고부가가치화사업 조명기기부문 제2차 지원 요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규모 : 31억원('98 운용규모 45억원중 1차 지원 잔여분)
 2. 용자대상
자기상표 및 디자인개발로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조명기기 관련업체
 3. 용자조건
 - 가. 용자금리 : 연 8.5%
 - 나. 용자기간 : 5년 이내(2년거치 3년분할상환)
 - 다. 용자비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4. 용자취급 은행
관리은행과 산업기반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5. 용자신청
 - 가. 신청기간 : '98. 6. 3 - 6. 18 (2주간)
 - 나. 신청시 유의사항
 - 1) 우편접수시는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 2) 신청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는 반환하지 않음.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137-040) 서울 서초구 반포동 51-5 대경빌딩 9층
한국전기공업진흥회 진흥부 진흥과
(전화 : (02)3476-0271/4, 전송 : (02)3476-0275)
- ※ PC통신 안내 : <용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제공(제목 : 전기진흥회)
- 천리안 : 접속 → 6. 자료실 → 7. 데이터자료실 → 1. 일반자료실 → 2. 경영/경제
 - 유니텔 : 접속 → 5. 공개자료실 → 8. 워드/문서 → 7. 기타 워드프로세스/양식
 - 나우누리 : 접속 → 14. 자료실 → 1. 공개자료실 → 9. 일반문서

한국전기공업진흥회장

「'98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 성황리에 폐막

「'98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이 지난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여의도 종합전시장에서 국내외 13개국 106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열려 총 관람객 3만3천여명에 수출 상담실적 2억6천만불의 성과를 올리며 성황리에 폐막됐다.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기공업진흥회가 주관한 이번 전시회에는 현대중공업, LG산전 등 국내 주요 중전기기 업체 및 단체 94개사를 비롯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 12개국 12개사가 대거 참가하여 국내외 첨단 전기공업 제품과 최근 개발한 신기술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지난 연말부터 몰아닥친 IMF 금융 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기업체가 내수 부진을 탈피, 수출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호기로 보고 자체 기술개발 한 첨단 제품 및 최신 기기들을 총망라 선보임으로써 더욱 내실있는 전시회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정부나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완료한 중소기업 제품 및 최근 크

게 부각되고 있는 벤치기업의 제품을 별도로 전시하는 『특별 홍보 센터』를 마련, 관람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시기간 동안에는 일본의 동경, 중부, 관서 전력 등 『일본 전력 기자재 구매 촉진단』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기계행업분회(CCPIT)에서 『중국 전기공업 교류 촉진단』이 방한, 전시회를 관람하고 관련업체와 수출 상담회를 가진 것을 비롯 관심품목 및 업체의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우리나라 제품의 우수성을 세계 각국에 알리고 對日, 對中 교류 및 시장 진출 확대에도 기여했다.

이밖에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지원 하에 세계 40개국에서 전기관련 해외 바이어 292명이 특별 내한하여 수출상담회 및 카탈로그 전시회를 갖는 등 이번 전시기간 동안 『SIEF』 개최 이래 가장 많은 약 3천여명의 해외 바이어가 전시장을 찾아 수출상담을 갖음으로써 약 2억6천만불 이상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최근 내수 부진으로 침체에 빠져 있는 국내 전기산업계에 수출 활력을 불어넣고

중전산업의 수출산업화 촉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번 전시회에는 최근의 경기불황으로 부도를 당한 신아전기공업, 대봉전선 등 3

개 업체가 참가하여 기업의 기술력을 과시하고 수출상담을 함으로써 투자유치를 통한 재생 의지를 불태우는 모습을 보여 관심이 집중되기도 하였다.

일본 7대 전력회사 초청 구매상담회 성과

한국전기공업진흥회가 연간 12억달러에 달하는 일본의 전력기자재 수출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일본의 주요 전력회사와 국내 공급업체를 동시에 대거 초청해, 지난 5월 21일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공동으로 전력기자재 구매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에는 일본의 7대 전력회사(동경, 중부, 관서, 중국, 북해도, 구주, 오키나와 전력)와 칸사이테크 등 공급업체 책임자 등 13개사 26명의 일본측과 한국중공업, LG전선 등 70여개 국내업체가 참가해 500여건의 상담을 벌여 5천만불의 상담실적을 기록했다.

이번 상담회에서의 주요 상담품목은 차단기 스위치, 케이블, 고압선 전선, 초고압 케이블, GCB 차단기, VCB 차단기, 개폐기, 변압기 등으로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이 높아 향후 수출 유망품목으로 지목됐다.

일본 전력회사(총 10개사)의 해외조달규모는 총 12억500만달러 규모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동경전력이 4억3,600만달러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중부전력이 2억9천만달러, 관서전력이 1억4천800만달러 순으로 되어 있어 이번 개최되는 구매상담회가 우리나라 전력기자재의 대일 수출확대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의 전력회사들은 '90년대 초부터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공급을 위해 자체적인 경영합리화 노력과 함께, 특히 코스트절감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자재조달을 점차 확대해 오고 있다.

최근 해외로부터 저렴한 전력기자재를 조달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조달희망품목을 게재하는 등 전세계를 대상으로 경쟁력이 있는 신규 공급업체를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기자재 대일 수출은 아직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변압기, 전선·케이블 분야 등 일부 제한된 품목에서만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향후 본격적인 시장공략과 성실한 상담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진

다면 스틸파이프, 축전지, 차단기, 강관, 가스 터빈, 금구류 등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유망분야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부전력은 지난해부터 발전소 건설에 따른 강관재를 해외로부터 조달을 했는데 그 대부분이 한국산이었으며 일본 국내 메이커로부터 구입한 가격보다 10% 정도 저렴해 지속적인 진출이 확실시 되고 있다.

우리나라산 제품은 가격 메리트 뿐만 아니라 구미 등에 비해 수송비가 저렴하고, 세계적인 조강생산 능력을 자랑하는 포항제철이 있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일본산과 규격이 유사한 점이 많고, 일본 전력회사가 요구하는 기술수준을 대부분의 국

내업체들이 갖추고 있어 여타 국가보다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구매상담회에는 국내 유력 전력기자재 공급업체인 한국중공업, 효성중공업, LG전선, 극동전선, 대한전선, 일진산전, 동남물산 등을 포함하여 약 70여개 업체가 상담에 참가했다.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본격적인 전력기자재 대일 수출확대를 위해 장기적인 토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이미 작년도에 일본 전력기자재 진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 이번 상담회와 병행해 국내업체의 일본 전력기자재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오는 10월에는 전력기자재 대일수출촉진단을 파견하고, '98 동경한국부품전시회에 전력기자재를 출품할 계획으로 있다.

전기전자제품 전문 수출상담회 성공리 개최

전기·전자제품만의 대규모 전문 수출상담회가 국내 최초로 개최됐다.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국내 전기전자 업계의 내수부진 탈출과 수출촉진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공동으로 지난 5월 18일, 무역센터 KOTRA 상담실과 한국종합전시장에서 대규모 전기전자제품 구매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에는 KOTRA 해외무역관을 통

해 세계 40개국 292명의 바이어가 초청됐으며, 국내 전기전자 업체와 약 2천건에 달하는 구매상담을 벌여, 1억5천만달러에 달하는 상담실적을 올렸다.

이번 상담회는 단일품목 수출상담회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최근 원화의 환율상승으로 우리 제품의 품질대비 가격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업체들의 수출확대 욕구 만큼이나 해외 바이어들의 우리제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바이어들의 구매상담 품목은 발전기, 변압기, 개폐기 등 중전기기 제품에서부터 통신기기, 컴퓨터 주변기기, 집적회로 등 전자제품 및 부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는데, 특히 전기 제품은 차단기, 변압기, 안정기 등 산업용 전기기기 위주로, 전자제품은 일회용 카메라, TV등 가정용 전자제품 위주로 활발한 상담이 진행됐다.

국내 I사와 배전망용 SF₆ 스위치 구매상담을 벌인 이스라엘의 Hayotzert사는 한국산 제품이 안정성이 우수하고 품질대비 가격경쟁력이 높아 현지시장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직접 공장을 방문해 구체적인 상담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순수 자체기술로 대형전광판을 전문으로 생산해 최근 일본으로 100만달러 규모의 전광판을 OEM방식으로 수출한 바 있는 E사는 이란의 Noor Sadat사와 독점에이전트 공급조건으로 구체적인 수출상담을 벌였다. 이 바이어는 테헤란 국제공항 및 축구경기장용으로 300만달러에 달하는 2기의 대형 전광판 수입의사를 밝혔으며, 조만간 E사가 이란을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상담을 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전력기자재는 특성상 전력 및 석유 채굴회사 등에 전문 에이전트를 통해 대규모로 정기 납품되는 것이 특징인데, 한국전기공

업진흥회와 KOTRA는 이번 상담회에 쿠웨이트의 최대 석유채굴회사인 KNPC사와 석유정제회사인 KOC사의 유력 구매대리인인 Gazhen Group Int'l사를 초청, 국내의 변압기 등 전력기자재 전문생산업체인 H중공업 등 6개사와 연간 1천만달러 공급상담을 추진토록 주선했다. 국내업체가 일단 공급업체로 등록되기만 하면 향후 수출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파라과이의 Cociel사와 국내의 H중공업은 현지의 전력청(ANDE)이 발주하는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8천만달러 규모의 변압기 및 전선구매를 위한 구체적인 상담을 벌이는 등 향후 우리나라의 대형 전력기자재 수출전망을 밝게 했다.

국산 조명기기는 그동안 가격경쟁력 상실로 수출이 주춤했는데, 이번 상담회에 참가한 상해의 青江市燈具總廠에서는 조명 및 가로등 설비 1,800만달러의 수입상담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이번 상담회 상담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23일까지 여의도 종합전시장에서 개최된 「'98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에 상담회 참가 바이어의 대부분이 참가토록 함으로써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 전기산업분야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